濟州島硏究 제55집
2021. 2. pp.179~198.

시적 공간 '성산포'의 장소성 고찰
– 이생진의 『그리운 바다 성산포』를 중심으로 –

양 지 혜*

국문요약

문학 작품은 세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인본주의 지리학의 등장으로 문학 작품은 지리학자에게도 지역의 장소와 장소성을 연구하는 중요한 연구자료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서는 이생진 시인의 『그리운 바다 성산포』를 통하여 성산포의 장소성을 경관, 시간, 공동체, 뿌리내림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성산포의 주요 경관인 바다에서 마을로의 시선 이동, 일상과 삶·죽음의 시간의 흐름 속 장소, 공동체의 신념과 가치관이 공유되는 장소, 친밀한 장소 경험에서 오는 장소 애착으로 뿌리내림의 장소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의 특성이 형상화된 문학 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장소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과 감성, 지식을 제공할 수 있고 장소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장소성 형성과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한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성산포, 장소성, 인본주의 지리학, 문학지리학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박사과정

Ⅰ. 서론

문학에서 장소는 작품의 소재로 또는 공간적 배경으로서 주요한 요소이다. 인본주의 지리학 또한 장소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데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조동일(2005)은 특정 지역의 문학적 자산을 자연지리에 대한 관심과 연결해 그 지역의 위치, 지형, 기후, 생태, 인물, 인심, 공동체의 체험, 지역의 방언 분화, 풍속, 역사 등을 전체로 아우르며 그것이 문학상상력에 어떤 자양분을 공급하고 미학적 숨결을 불어넣었는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문학지리학을 언급하였다. 특히 지역 문학은 문학지리학과 깊은 관련을 갖는데,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장소 또는 공간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강영기, 2007: 34). 인본주의 지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지역의 공간이 장소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한다. 작가는 특정 지역에 새겨진 역사, 지리, 정치, 심리 등을 고찰하고 지역 사람들의 삶과 지역을 형성하는 자연과의 조화, 아름다움을 형상화함으로써(강영기, 2007: 35), 해당 지역이 특별한 장소성을 형성하도록 한다.

조동일은 문학지리의 연구 대상을 공간 이동의 정도에 따라서 크게 둘로 구분하였다. 하나는 작품화된 지역에서 태어나거나 일정 정도 그 지역에 거주한 작가가 창작한 작품(지방 문학)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이외의 작가가 지역을 돌아보고 그 감회를 형상화한 작품(여행 문학)이다(조동일, 2004: 159). 제주는 자연지리적 환경, 물리적 배경, 역사적 사건, 그리고 제주사람들의 독특한 인문지리적 성향으로, 다수 문학 작품의 대상이 되거나 주요 공간적 배경이 되었다. 제주 문학의 근본이 되는 신화와 전설, 본풀이는 전래되어 콘텐츠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많은 문인들이 고향 문학을 다채롭게 선보이고 있다. 또한 제주를 공부하고 여행하여 발간된 순례 문학도 여럿이다. 특히 시인 이생진은 섬과 바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의 작품 세계에 반영하였다. 시인은 제주 성산포에 머물면서, 성산포를 시적 공간이자 지리적 장소, 작품의 제재로 하는 시를 썼다. 시인은 그의 시집『그리운 바다 성산포』의 후기와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그리운 바다 성산포」 81편의 시 가운데 1에서 24까지는 1975년 여름에 성산포에서 쓴 것인데 ...(중략)... 25에서 81까지의 57편은 1978년 초봄 그 곳에서 바다를 보며 정리한 것들이다. – 후기 중에서
>
> 햇볕이 쨍쨍 쪼이는 날 어느날이고 제주도 성산포에 가거든 이 시집을 가지고 가십시오.

> 이 시집의 고향은 성산포랍니다. 일출봉에서 우도(牛島)쪽을 바라보며 시집을 펴면 시집 속에 든 활자들이 모두 바다에 뛰어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시집에서 시를 읽지 않고 바다에서 시를 읽을 것입니다. 그 때 당신은 이 시집의 시를 읽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시를 읽는 것입니다. 성산포에 가거든 이 시집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 시집의 고향은 성산포랍니다.
>
> – 머리말 중에서

이 시집은 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제주 성산포에 머무르면서 쓴 지역 문학 작품이며, 독자로 하여금 성산포라는 물리적 공간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하여 지리적 장소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품을 썼음을 밝히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 권의 시집이 작품의 제재이자 배경으로 '바다 성산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작가가 시집을 통하여 장소에 대한 특정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산포는 다수의 문학 작품의 주요 소재, 제재이자 배경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학지리학의 관점에서 성산포의 장소성에 대한 연구는 강영기(2008) 이후 진행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 연구는 이생진의 시집『그리운 바다 성산포』(1996, 동천사)에 수록된 81편 중에서, '성산포'를 시의 공간이자 지리적 장소로 다룬 시를 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성산포에서 유추되는 주된 경관적 이미지는 '바다'이다. 이생진 시인 또한 바다를 주요 시적 대상으로 하여 성산포의 장소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장소를 구성하는 요소를 바탕으로, 이생진 시인이 형상화한 성산포에서의 장소 경험을 확인하고 성산포의 장소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1] 시인 이생진 詩碑 거리(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05-1)

Ⅱ. 장소와 장소성

문학 작품은 자연·사회·문화적 내용, 즉 사람이 속한 세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인본주의 지리학의 등장으로 문학 작품은 지리학자에게도 중요한 연구자료로 받아들여졌는데, 이은숙(1992: 147)은 문학지리학을 경관이나 장소에 대한 해설 또는 지리학적 현상으로서의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것이라 하였다.

인본주의 지리학에서의 장소는 물리적 공간인 환경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및 그들의 활동, 그리고 사람과 환경 간의 오랜 상호작용 속에서 문화적으로 형성된 다중성, 고유성, 역사성, 정체성을 띤 삶의 총체이다(이무용, 2006: 43). 즉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인간에 의해 구성된 다양한 차원의 의미들이 축적된 공간이다(차윤정·차철욱, 2013: 89).

장소 개념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인본주의 지리학자 이-푸 투안(Yi-Fu Tuan)은 저서 『토포필리아 Topophilia』(1974)와 『공간과 장소 Space and Place』(1977)에서, 공간은 행동, 움직임의 개방적 무대이며, 공간 과학의 추상과 경제적 합리성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반면 장소는 멈춤, 쉼, 관계를 맺어감에 대한 것이며 '가치', '소속' 같은 것에 대한 논의에 적합하고, 인간은 장소를 통한 지각과 경험에 의해 세계를 이해하며, 이러한 사람과 장소 간의 정서적 유대를 '장소애 Topophilia'라 명명하였다(크레스웰, 심승희 역, 2012: 31, 재인용). 최근 서영채(2019: 275) 또한 공간과의 비교를 통하여 장소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였는데, 공간은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장소는 주인이 있는 곳으로 주체의 개입이 공간과 장소의 차이를 만든다고 하였다. 장소는 주체화된 공간, 즉 주체에 의해 구획되고 분할되고 점유된 공간이지만, 객관적인 것으로서의 공간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경계나 한계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의 공간에 인간의 구체적인 행위가 개입되면 공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발생되고, 의미가 발생되는 순간 그 공간은 장소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조효주, 2020: 336). 반대로 몇 년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온 장소에 대해 외관상 중요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모든 것이 변했다고 느끼면서 장소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기도 하지만, 기억을 조금 살려내면 옛 장소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하기도 한다(렐프, 김덕현 외 역, 2005: 81). 이처럼 공간과 장소의 개념은 각각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투안, 윤영호 외 역, 2020: 19).

지리학은 문학 작품에 그려진 공간에 대해 '장소(place)'와 '장소성(placeness)'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장소는 인간 의도의 산물이고 인간 활동을 위한 의미로 가득한 환경을 의

미한다(렐프, 김덕현 외 역, 2005: 148). 렐프는 장소의 속성으로 경관, 시간, 공동체, 뿌리내림을 들었다(크레스웰, 심승희 역, 2012: 35). 경관은 인간의 감각기관이나 도구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외부 세계이고(차윤정·차철욱, 2013: 90), 장소는 건물이든 자연물이든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각적 경관을 속성으로 한다(렐프, 김덕현 외 역, 2005: 79). 그리고 장소는 시간을 그 특성으로 한다. '고향'에 대한 애착이 그곳에 살았던 시간에 비례하는 것처럼 장소에 대한 애착 형성은 시간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렐프, 김덕현 외 역, 2005: 82). 또한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장소 사이의 관계는 사실 매우 밀접하다. 공동체가 장소의 정체성을, 장소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기도 한다(렐프, 김덕현 외 역, 2005: 86). 그러나 렐프는 장소가 경관과 시간, 공동체의 가치에 의해서만 정의되기보다, 특정 환경에 대한 경험과 의도에 초점을 두어 정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장소에서의 특정 경험은 장소에 대한 긴밀한 애착, 친밀감을 형성하고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이러한 장소와의 깊은 유대는 장소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나타난다(렐프, 김덕현 외 역, 2005: 94, 287). 인간 역시 장소에서의 다양한 장소 경험을 통해 장소 애착과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런데 장소 경험은 개인마다 개별성을 띠는 동시에 공통성을 띠기도 한다. 장소에서의 공통적 경험은 정서적·심리적으로 깊은 유대를 느끼는 장소성 형성의 기반이 된다(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3).

장소성은 장소의 본질, 장소의 본질적 성격을 말한다. 심승희는 인본주의 지리학의 입장에서 본 장소성 연구는 장소마다 고유하면서도 본질적인 장소적 특성이 내재해 있다고 전제하고, 이 장소성은 주로 섬세하고 통찰력 있는 감수성을 통해 발견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소성 연구가 시, 소설, 영화, 대중가요, 에세이 같은 텍스트 속에 재현된 특정 장소나 보편적 장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독자들에게 장소에 대한 통찰력 있는 감성과 경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의 장소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그 의의를 살폈다(심승희, 2013: 99). 문학 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은 해당 지역을 다차원적으로 경험하고, 작가들의 주관적 장소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지역에 대한 장소성을 풍부하게 내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장소 의미의 본질을 획득할 수 있다.

제주는 지역 문학에 대한 인식과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이다. 언어와 민속의 차이에서 오는 제주 문화의 특징이나 제주 사람의 의식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를 탐구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다. 제주 문학의 개념에 대해 고민하고, 제주의 역사적 특이성을 담은 제주 민요, 무속본풀이를 비롯하여 신화와 전설, 현대시와 소설 작품을 포함하였다(조동일, 2004: 164-165). 이러한 제주 문학을 바탕으로 장소와 장소성에 관련

한 논의는 오대혁, 장석주, 강치영, 강영기, 강유정, 이민정 등에 의해 진행되었다. 오대혁은『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2005)에서 신화와 제주 사람들의 삶을 대상으로 고전문학적 측면에서 제주 공간을 이야기했고, 장석주는『장소의 탄생』(2006)에서 바다와 제주 4·3사건을 제재로 제주도를 문학적 공간으로 분석하였다. 강치영·권상철(2006)은 제주 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을 자연공간, 역사공간, 예술공간, 생활공간, 미래 공간으로 연구하였다. 강유정(2012)은 윤대녕의 작품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제주를 '작가의 소설적 변화를 보여주는 서사적 토포스(Topos)이자 공간을 통해 소설적 전언을 담아내는 상징'이라 하였다. 이민정(2019)은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에서 제주 사람들이 이어도라는 허상의 공간을 어떻게 장소애(토포필리아)로 귀착시키는지 분석하고 그 속에 드러나는 여성성을 고찰하였다. 강영기는 시에 나타난 성산포, 제주시, 서귀포, 마라도의 공간적 의미를 문학지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는데, 이는 제주 문학 지도의 작성을 위한 논의라 하였다(강영기, 2007a: 32).

Ⅲ. '성산포'의 장소성

1. 시적 공간 성산포

문학 이론 측면에서 공간은 상징적, 비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학적 의미 공간은 지역 문학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보여주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작가는 지역의 역사, 정치, 지리,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과 지역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그려낸다. 작가는 주관적이고 개인화된 장소를 텍스트로 형상화하고 독자들이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직화한다. 작가에 의해 그려지는 경관의 상징성, 장소의 변화, 경관에 대한 애착, 개인적 장소 경험 등은 독자에게 공간에 대한 구체적 장소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이은숙·정희선·장은미, 2007: 54), 독자가 장소의 의미를 한 층 더 음미할 수 있도록 한다.

시 속에 나타나는 구체적 공간, 즉 시적 공간은 시인의 텍스트로 형상화된 지리적 장소이다. 시의 공간은 시간과 밀접하게 관계 맺으면서, 육체가 몸담고 의지하고 뿌리내리고 있는 곳이다(김화영·김정란, 1991: 112). 이와 같은 시적 공간의 특징은 장소의 속성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지역적 정체성과 특수성을 보여주는 장소로 성산포를 들 수 있다. 성산포는 제

주도의 동쪽에 바다로 돌출된 곳으로, 성산항이 있으며 일출봉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성산포의 장소성을 제재로, 많은 시인들이 성산포를 시적 공간으로 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시 속에 나타난 성산포의 문학 공간적 이미지로 두드러지게 형상화된 장소성은 그리움이다(강영기, 2008: 223)

...(전략)...
호기심이 밀물처럼 몰려온다
칠십여 년 전에 묻힌 / 우리 할아버지의 유해일까

바닷바람에 해변을 거니는 / 할아버지의 체향을 느낀다
...(중략)...

시린 바닷바람에 / 모래가 날리자 쉬이 / 할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은 추운 줄도 모르고 / 골분을 파헤치며 / 성을 쌓는다
- 오광석,「광치기해변의 아이들」(『제주작가』, 2020년 가을호: 138)

오광석 시인은 '칠십여 년 전' 제주4·3사건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성산포의 '바닷바람, 모래'에서 '유해, 체향,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으로 형상화하였다. 광치기 해변은 일출봉과 바다가 어우러져 경관의 미적 가치가 매우 높다. 하지만 성산포는 시인과 제주 공동체의 특수한 장소 경험에 의해 아픔과 그리움의 시적 공간이 된다.

초록빛 통신을 하염없이 띄우던 바닷새 / 눈부신 고요처럼 / 눈을 뜨던 바람은
어느덧 그리운 성산포로 달려가고 //
유채꽃 들판엔 / 언제나 / 어머니의 혼이 노오란 불씨로 타고 있음.
- 가영심,「성산포 연가-새」[1](강영기, 2008: 223. 재인용)

가영심 시인은 성산포의 자연물을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였다. '바닷새, 바람'은 성산포를 향해 가고, 마침내 다다른 그곳의 '유채꽃 들판'에서 '어머니의 혼'과 마주하게 된다. 시인이 '어머니의 혼'과 마주하는 장소 경험을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는 성산포를 그리움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

성산포의 또다른 시적 이미지는 '일출 또는 시작'이다. 성산일출봉이 가지고 있는 정형

1)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서정시 제주도』, 17.

화된 장소적 이미지에 기인한 것으로 시인은 이를 텍스트로 구체화한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작가가 그린 성산포의 공간적 이미지를 그대로 내재하게 하여, '성산포 = 일출과 시작'이라는 공식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비릿한 바람이 / 어둠을 몰고갑니다. //
멀리 수평선이 솟아오르는 / 두 주먹 불끈 쥔 8월의 아침 //
일출봉은 벌떡이는 / 제주의 심장입니다.

- 안재운, 「제주 일출봉」[2](강영기, 2008: 229. 재인용)

강영기(2008)는 이외에도 성산포가 지닌 문학 공간적 의미로 '자연 그대로의 모습, 제주의 심장, 생동감, 세상살이의 한, 쉼터'를 제시하였다. 성산포에 대한 다양한 문학 공간적 의미가 생성되는 이유는 성산포가 지닌 자연 환경· 인문 환경적 매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라 하였다(강영기, 2008: 232).

한편, 이생진 시인이 그리고자 했던 시적 공간 성산포는 '바다'로 대표된다.

성산포에서는 / 교장도 바다를 보고 / 지서장도 바다를 본다
부엌으로 들어온 바다가 아내랑 나갔는데 / 냉큼 돌아오지 않는다
다락문을 열고 먹을 것을 / 찾다가도 / 손이 풍덩 바다에 빠진다

성산포에서는 / 한 마리의 소도 빼놓지 않고 / 바다를 본다
한 마리의 들쥐가 / 구멍을 빠져나와 다시 / 구멍으로 들어가기 전에 / 잠깐 바다를 본다
평생 보고만 사는 내 주제를 / 성산포에서는 / 바다가 나를 더 많이 본다

– 이생진, 「1 바다를 본다」

시인의 눈에 '교장, 지서장, 아내, 소, 들쥐' 모든 공동체가 바다와 더불어 살고, 바다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바다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성산포 지역 내의 존재들을 발견하고, 동시에 바다가 바라보는 시적 공간 성산포를 상상하게 된다. 시인은 눈이 바다를 향하고 있을 때, 바다의 시선도 자신을 향해 있었음을 인식하며, 시적 대상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의 역전을 경험한다. 이로써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동시에 바다가 보는 성산포 지역 내의 존재에 시인 자신도 포함된 것이다.

이생진 시인은 1991년 월간 현대시학의 기획특집을 통해 '바다란 안팎으로 무한한 공

2)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서정시 제주도』, 279.

간을 지니고 있는 거대한 자연'이며 '그것은 무한한 아름다움과 새로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무한한 상상의 자유, 그것을 우리는 시의 공간에서 읽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독자가 시를 읽은 후 성산포를 보게 되면 시인 자신과는 다른 시적 상상에 부딪칠 것이며, 그것은 독자의 자유로운 시적 경험이자 시적 공간의 확충이라 하였다(이생진, 1991: 59-60).



[그림 2] 성산항과 우도

2. '성산포'의 장소성

시의 장소는 인물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위치가 된다. 시 속의 장소란 당대의 주요 이념이 투영되는 권력의 장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이념에 대한 수용·변용과 거부·부정·반발이 일어나면서 인물의 모습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삶의 장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생진의 시의 경우처럼 특정한 장소를 살아가는 인간의 면면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장소에 대한 인간의 역사·사회·문화적인 감정·태도·가치와 성격 규정은 핵심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강정구·김종회, 2012: 316-317).

물리적이고 추상적인 공간을 구체적인 장소로 만들어가는 애착 형성 과정에는 인간의 감정, 생각, 활동 등 '공간을 통한 경험'이 바탕이 된다(차윤정·차철욱, 2013: 89). 렐프(Edward Relph)는 장소 경험의 측면에서 장소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장소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

소의 다양한 속성 및 개인적 장소 경험을 탐구하도록 하였다(렐프, 김덕현 외 역, 2005: 77). 이에 본 원고에서는 렐프가 언급한 장소의 속성인 경관, 시간, 공동체, 뿌리내림의 특성을 가지고, 이생진 시인이 표현한 개인의 장소 경험을 분석하고 성산포의 장소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관

경관은 가시적인 외관으로 장소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어떤 경관이나 장소의 가치는 자연적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관이나 장소에 대한 인간의 깨달음이나 직관력, 주체의 경험에 있다. 그것을 느끼고 겪는 사람의 의식과 상호작용이 없으면 경관이나 장소도 존재할 수 없다. 이안 나이른은 '장소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수만큼이나 많다'고 하였다(렐프, 김덕현 외 역, 2005: 109. 재인용). 이처럼 그 사람의 의식, 관심, 경험의 차이에 따라 지역에 대한 이미지나 장소감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경관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다(박용찬, 2009: 262; 박태일, 1994, 468-469).

일반적으로 '성산포'는 행정구역상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또는 배를 선착하던 포구, 항구와 같이 영역이 한정된 지리적 장소를 나타낸다. 이생진의 시에서는 제주 섬의 해안 마을 중에서도 일출봉과 우도와 가까운 포구 마을, 그리고 바다가 성산포를 이룬다. 사실적 자연 경관인 바다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대상이며, 바다에 접하여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장소이다. 시인은 성산포의 주요 자연 경관인 바다를 대상으로 하여 성산포의 장소성을 형상화한다.

시인의 일방적 시선에 의해 장소성이 드러나는데, 작가의 이러한 시각은 단순한 바라봄이 아니라, 작가의 주체 의식에 따른 선택적인 바라봄이다.

하늘이여 / 바다 앞에서 / 너를 쳐다보지 않는 것을 / 용서하라
...(후략)..

- 이생진,「44 하늘에게」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시인이 일방적 시선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가 섬의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물론 이 시선은 시인의 것이며, 바다를 통해 재현된 것이다.

바다는 / 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 한 나절을 정신없이 놀았다

아이들이 손을 놓고 / 돌아간 뒤 / 바다는 멍하니 / 마을을 보고 있었다
...(후략).. – 이생진,「30 바다의 오후」

이로써 '바라봄'의 대상은 바다와 성산포 지역과 사람들·집단이 되고, 장소의 범위가 확장되며 이야기가 다양해진다. 성산포는 바다라는 미적 경관을 가진 한정적인 장소에서, 경관의 확장을 통해 사람과 마을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다채로운 성산포의 장소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성산포를 풍요롭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장소는 시인의 지리적 상상력을 통하여 시의 공간을 넓혀감으로써 신선한 장소 인식이나 기존 장소감에 대한 재장소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박태일, 1994: 476).

성산포에서는 / 바다를 그릇에 / 담을 순 없지만
뚫어진 구멍마다 / 바다가 생긴다
뚫어진 그 사람의 허구에도 / 천연스럽게 / 바다가 생긴다
– 이생진,「24 바다를 담을 그릇」

위 시에서 성산포는 바다가 있는 곳이며 장소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 바다는 사람이 사는 곳곳마다 존재하며 일상에 파고들어 삶·시간을 같이 하며 또한 사람들의 허구·상상의 영역에까지도 존재하는 대상이다. 생사를 경험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을 얻기 위하여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고 사람들에게, 바다는 '바라봄'의 경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은 당연하다. 경관으로 나타나는 장소성은 시각을 통해 객관적으로 지각되는 물리적·공간적 대상 이상으로 주체의 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선택적 산물이다(박용찬, 2009: 266).

2) 시간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상이 변화해 온 자취, 즉 역사는 시각적 경관의 아름다움이 더욱 완전한 의미를 지니게 하고, 그것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 준다(박용찬, 2009: 262). 특정한 장소에서의 역사적 경험은 개인의 경험으로 축소되지 않고 집단 경험으로 확장된다. 개인의 장소 경험은 집단의 경험으로 공유·확장되고, 장소성을 획득하면서 역사적 장소로 변화하며 상징화된다(남진숙, 2015: 28).

인간이 겪는 '탄생–삶–죽음'과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은 매우 일상적이면서 절대적이다.

가장 살기 좋은 곳은 / 가장 죽기도 좋은 곳
성산포에서는 / 생과 사가 손을 놓지 않아 / 서로 떨어질 수 없다

– 이생진, 「9 생사」

저 세상에 가서도 / 바다에 가자 / 바다가 없으면 / 이 세상 다시 오자

– 이생진, 「37 저 세상」

살아서 무더웠던 사람 / 죽어서 시원하라고 / 산 꼭대기에 묻었다 //
살아서 술 좋아하던 사람 / 죽어서 바다에 취하라고 / 섬 꼭대기에 묻었다. //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 보리밭에 묻었다 //
...(후략)..

– 이생진, 「47 섬 묘지」

시인에게 바다는 '생과 사가 손을 놓지 않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장소이며,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서라도 함께 하고 싶은 장소로 재현되고 있다. 또한 사람이 죽어 묻힐 때도 아무 곳, 아무 장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인생·시간을 읽어냄을 표현하고 있다. 살아서 무더웠는지 술을 좋아했는지 가난했는지, 죽은 자가 살았던 시간의 경험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심리적 위안의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다. 시인은 성산포를 삶과 죽음이 공존하고, 죽음 이후에도 위안이 되는 장소로 형상화하고 있다.

바다는 / 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고 / 한 나절을 정신없이 놀았다
아이들이 손을 놓고 / 돌아간 뒤 / 바다는 멍하니 / 마을을 보고 있었다
마을엔 빨래가 마르고 / 빈 집 개는 / 하품이 잦았다
밀감나무엔 / 게으른 윤기가 흐르고
저기 여인과 함께 탄 / 버스엔 / 덜컹덜컹 세월이 흘렀다

– 이생진, 「30 바다의 오후」

시인은 마을에서도 시간·역사를 읽어낸다. 젖었던 빨래가 마르는 변화, 하루를 살아낸 개가 하품을 하고, 밀감나무에 윤기가 돌고, 마침내 여인에게서 멈춘 시선에서는 세월, 시간의 흐름을 확인한다. 시간은 장소 경험의 일부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끊임없는 변화나 계속성과 묶여져(렐프, 김덕현 외 역, 2005: 85) 장소성을 형성한다.

물론 특정한 장소에서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벤트로 인한 집단의 경험은 장소성 형성에 강한 영향을 준다.

파도는 살아서 살지 못한 것들의 넋 / 파도는 살아서 피우지 못한 것들의 꽃
...(중략)..
사슴이여 살아 있는 사슴이여 / 지금 사슴으로 살아 있는 것은 / 얼마나 행복하냐
꽃이여 동백꽃이여 / 지금 꽃으로 살아 있는 것은 / 얼마나 아름다우냐
...(후략)..

– 이생진,「63 넋」

많은 작가들이 제주의 역사적 상처인 제주4·3사건을 형상화하였다. 이생진 시인 역시 '파도, 꽃, 동백꽃'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성산포를 역사적 아픔의 장소로 재현하였다. 주민·집단과 장소 간의 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강화시키고(렐프, 김덕현 외 역, 2005: 84) 장소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3) 공동체

장소에 대한 느낌(장소감)은 개인의 정체성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하고, 또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정체감의 원천이 된다. 진정한 장소감이란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다(렐프, 김덕현 외 역, 2005: 150). 이러한 소속감은 집이나 고향, 지역이나 국가 등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한 공간이 장소가 되고, 그 장소만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공간과 개인, 공간과 공동체가 일상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조효주, 2020: 344).

성산포에서는 / 살림을 바다가 맡아서 한다 / 교육도 / 종교도 / 판단도 / 이해도
...(후략)..

– 이생진,「3 끊을 수 없다」

장소는 개인 또는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며, 장소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여 장소성을 획득한다. 사실 방향 감각 같은 단순한 인지에서부터 장소의 정체성에 공감하는 능력, 인간의 실존과 개인적 정체성의 바탕으로서 장소와 관련을 맺는 것 등 장소성에 대한 인식의 범위는 넓다(렐프, 김덕현 외 역, 2005: 145). 위 시에서 시인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살림, 교육, 종교'와 같은 일상적 경험들에 바다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이성과 신념, 이념, 수용의 태도, 삶을 영위하는 행위 등이 바다에 의해 결정되어 공동체의 장소 애착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성산포는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강한 영향을 주는 곳으로서의 장소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설을 빌면 / 저 바위도 이 바위도 / 모두 장수의 짓이라고
저 바다를 이 바다로 / 옮겨 놓은 것도 / 장수의 짓이라고
그런데 / 그 장수 / 세월을 옮겨 놓지 못하고 / 왜 죽었을까
– 이생진, 「77 전설·장수론(將帥論)」

국민학교 운동장이 / 바다 쪽으로 기울었다 / 선생도 학생도 / 바다 쪽으로 기울었다
– 이생진, 「46 섬 운동장」

집단은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고 역사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대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망 속에서 공유된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인식의 방향이 유사해지고 동일한 시선을 갖게 된다. 전설·신화와 같이 공동체가 자연물에 이야기를 입혀 신성한 대상으로 또는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 행위는 공동체의 결속에 영향을 준다. 물리적 환경인 바다와 바위를 옮겼다는 장수의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어른에서 아이에게 전달되며 종교적 신념처럼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고 해당 환경은 의미있는 대상으로서 장소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시인의 학교 운동장, 선생, 학생이 바다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표현에서, 장소 경험을 공유한 집단이 동일한 시선을 갖게 되었으며 공동체적 유대감 강화와 더불어 장소에 대한 애착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뿌리내림

친밀한 장소는 인간의 기본 욕구가 받아들여지고 탈없이 보살핌을 받는 장소로, 친밀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만들어진다. 친밀한 경험은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 사소한 신체 접촉, 보호와 보살핌의 경험과 같은 의미있는 순간이다(투안, 윤영호 외 역, 2020: 56–59). 장소에 대한 애착 특히 집이나 고향에 대한 애착은 이러한 경험에서 만들어지는데, 집과 고향이 아무리 시시한 곳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장소 경험을 통해 형성된 애착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집과 고향은 가족·이웃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일상의 삶이 진행되며 삶의 뿌리가 착근된 생활 공간으로, 장소 정체성의 전체적 복합성을 직접적이고 순수하게 경험하는 진정한 장소감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강정구·김종회, 2012: 324). 투안은 애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친밀하지만 사소한 경험들을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시와 같은 문학작품에서 장소에서 겪은 친밀한 경험들을 잘 포착해서 보여주며 장소에 대한 애틋함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투안, 윤영호 외 역, 2020: 77, 243)

...(전략)..
바다 앞에서 / 거울을 보며 / 눈썹을 그리는 여인
바다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 빙그레 웃었다

– 이생진,「26 화장하는 여인」

성산포에서는 / 지갑을 풀밭에 던지고 / 바다가 시키는 대로 / 옷을 벗는다

– 이생진,「4 모두 버려라」

투안은 '장소들은 더 이상 내게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며, 유대가 없으면 장소는 어떤 의미도 없다고 하였다(투안, 윤영호 외 역, 2020: 63). 시인은 '바다가 뭐라고 하는', '바다가 시키는' 상상력을 통해 장소 경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바다와의 유대를 표현하였다. 눈썹을 그리다 바다의 말소리에 미소를 짓는 여인과 바다의 지시에 수동적이지만 자유를 만끽하는 인간의 경험을 통해 장소의 의미를 설명한다. 장소와 상호 소통하는 경험은 애착을 형성하는 친밀한 경험이다. 장소에 대한 애착은 친근함과 편안함, 보살핌과 안전에 대한 확신, 소리와 맛에 대한 기억 등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전략)...
밤새 들락날락 바다를 보았다 / 알몸인 바다가 차가운 바깥에서
어떻게 자는가 / 밤새 들락날락 / 바다를 보았다

– 이생진,「34 여관집 마나님」

내가 돈보다 좋아하는 것은 / 바다
...(중략)...
끝판에는 나도 바다 되려고 / 마지막까지 바다에 남아 있다
...(후략)...

– 이생진,「79 그리운 바다」

시인의 바다에 대한 장소적 애착은 바다를 걱정해서 밤새 들락날락하는 보살핌의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궁극적으로는 '바다가 되겠다'는 시인의 고백은, 장소와 강하게 유대하고 장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음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Ⅳ. 결론

문학지리학은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장소에 대한 인간의 역사·사회·문화적인 감정·태도·가치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분야(강정구·김종회, 2012: 332)이며, 공간과 개인 또는 공간과 집단이 어떻게 상호 소통하며 살아가는가를 살피는 시도이다(강영기, 2007a: 35). 문학 작품을 통하여 독자들은 해당 지역을 다차원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작가들의 장소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지역에 대한 장소성을 풍부하게 내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장소 의미의 원천이나 본질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학지리학의 관점에서 이생진 시인의 시집 『그리운 바다 성산포』 속의 '성산포' 장소성을 고찰해보았다. 『그리운 바다 성산포』는 시인이 직접 성산포에 머무르며 창작활동을 했고, 연작시라는 형식으로 시인의 특별한 창작 의도 혹은 지향이 전제되어 있어(조효주, 2020: 362)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에서 성산포를 시의 제재로 하여 그 장소성을 '그리움, 아픔, 일출, 시작, 생동감' 등으로 파악한 바 있다. 본 원고에서는 시인이 형상화하는 시적 공간이자 장소를 분석하고 장소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여 장소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장소성 확인을 위하여 경관, 시간, 공동체, 뿌리내림을 중심으로 시의 의미와 장소 경험을 고찰하였다.

이생진의 시에서 성산포는 작가의 주관적 선택에 의하여 바다를 주요 경관으로 하는 곳이었으며, 바다를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과 마을을 바라보는 바다의 시선이 동시에 나타나며 공간이 확장되고 있었다. 시인이 바다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마을도 또한 경관이 되며 마을에서 생활하는 개인·집단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 이로써 성산포는 사람과 마을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다채로운 장소성을 갖는다. 또한 성산포는 일상에서의 시간 변화, 삶과 죽음이라는 일생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공동체의 시간으로 보면 성산포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었으며, 죽음 이후에도 위안의 장소였다. 그리고 특정의 시간, 특정한 사건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이생진 시인의 시를 통하여 장소가 개인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동체 안에서 전설로 전해 오는 이야기는 장소가 종교적 신념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수용되는 장소성을 획득하도록 하였고, 성산포의 바다는 이성과 신념, 이념, 수용의 태도, 삶을 영위하는 행위 등에 영향을 주어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상적이고 친밀한 경험들은 장소에 대한 애착으로 자리잡아 성산포를 공동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시인은 성산포와 강하게 유대하며 친근함과 편안함, 보살핌, 뿌리내림의 장소로, 성산포의 장소성

을 갖게 하였다.

한 권의 시집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여 성산포 지역의 장소성을 밝혀내기란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문학 작품을 통하여 장소와 인간의 교감, 소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소성 형성에 기여하는 장소 경험들을 찾을 수 있었다. 지역의 장소성은 시각적 경관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이 재현된 문학 작품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다. 문학 작품은 장소에 대한 통찰력 있는 감성과 경험, 지식을 제공하며 독자들이 느끼는 장소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한다. 본 연구는 문학 작품을 통한 장소성 및 장소감 형성에 대한 인본지리학적 고찰의 시도이다.

참고문헌

강영기, 2007a,「시에 나타난 '제주시'의 문학적 공간 의미」,『현대문학이론연구』31, 31-52.

_____, 2007b,「시에 나타난 '서귀포'의 문학적 공간 의미」,『영주어문』14, 239-253.

_____, 2008,「시에 나타난 '성산포'의 문학 공간적 의미」,『영주어문』16, 221-233.

_____, 2010,「현대시에 나타난 제주도의 양상과 의미」,『영주어문』19, 237-258.

강유정, 2012,「윤대녕 소설에 나타난 제주의 상징성 연구 - 토포스(topos)로서의 제주」,『한국문학이론과 비평』56, 131-156.

강정구·김종회, 2012,「문학지리학으로 읽어 본 1980년대 신경림 시의 장소」,『어문학』117, 315-336.

강치영·권상철, 2006,「제주문학 속에 나타난 장소와 공간 연구」,『탐라문화』29, 7-43.

권혁래, 2016,「문학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연구방법론 고찰,」『우리문학연구』51, 167-197.

김진영·신정엽, 2010,「문학 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공간 논의에 대한 재고찰」,『지리교육논집』54, 1-15.

김태준 편저, 2005,『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국내편 1), 논형.

김화영·김정란, 1991,「우리詩의 지리적 공간과 시적 자리바꿈」, 월간『현대시학』6, 현대시학사.

남진숙, 2015,「섬, 역사적 장소와 공간의 상징」,『도서문화』46, 7-32.

박용찬, 2009,「고령문학의 공간과 장소성」,『退溪學과 韓國文化』45, 257-278.

박태일, 1994,「김영수 시와 문학지리학」,『한국문학논집』15, 461-487.

_____, 1999,「김영수 시와 문학지리학」,『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299-32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장소경험과 로컬 정체성』, 로컬리티 연구총서 14.

사단법인 제주작가회의, 2020,『제주작가』70.

서영채, 2019,『풍경이 온다: 공간, 장소, 운명애』, 나무플러스나무.

심승희, 2013,「장소 개념의 스펙트럼과 잠재력」,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81-119.

_____, 2013,「문학과 지리학의 만남, 문학지리학」,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308-338.

에드워드 렐프 저,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2005,『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월간『현대시학』, 1991년 6월호, 현대시학사.

이무용, 2006,「장소마케팅 전략의 문화적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고찰」,『대한지리학회』41(1), 39-57.

이생진, 1996,『그리운 바다 성산포』, 동천사.

_____, '시인의 노트/ 넓은 고독', 월간『현대시학』, 1991년 6월호, 현대시학사.

이은숙, 1992,「문학지리학 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문화역사지리』4, 147-166.

이은숙·정희선·장은미, 2007,「문학공간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방안: 종로지역을 사례로」,『지리학연구』41(1), 53-65.

이민정, 2019,「이청준「이어도」의 토포필리아와 여성성 고찰」,『문화와 융합』41(2), 965-992.

이 푸 투안 저, 윤영호·김미선 역, 2020,『공간과 장소』, 사이.

이 푸 투안 저, 이옥진 역, 2011,『토포필리아: 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로컬리티 번역총서 L6, 에코리브르.

장석주, 2006,『장소의 탄생』, 작가정신.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회, 2006,『서정시 제주도』.

조동일, 2004,「문학지리학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한국문학연구』27, 157-182.

_____, 2005,「문학지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준 편저,『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국내편 1), 논형, 20-26.

조효주, 2020,「신경림 시의 장소 상실과 현실인식 연구-「달 넘세」를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87, 333-369.

차윤정·차철욱, 2013,「무덤마을 주민들의 경험과 장소애착-돌산마을 사례를 중심으로」,『장소경험과 로컬 정체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저, 로컬리티 연구총서 14, 89-119.

팀 크레스웰 저, 심승희 역, 2012,『장소: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시그마프레스.

Abstract

A Study on the Placeness in Seongsanpo as Poetic Space from a poem <The missed ocean, Seongsanpo> by Saengjin Lee

Yang, Ji-Hye*

Literature show the world where men belong to and suggest how men recognize and experience the world. Since geography took humanism as the meaningful subject; Humanistic geography, literature has been taken as important references to study local places and so-called 'Placeness' to geographers.

This research considers the placeness of Seongsanpo in the landscape, the times, the communities and the rooted with a poem <The missed ocean, Seongsanpo> written by Saengjin Lee. The researcher could find the rooted placeness with the gazing line from the sea as the main landscape of Seongsanpo and the village, the place among daily lives and the times between life and death, the place that people could share their believes and values and affections by having familiar local experiences through this poem.

This research can give people various experiences, sensibilities and knowledges related to the local place and make them abundantly experienced in a way of making references between geography and literature. And also it is relevant due to considering literature as the meaningful media to build and deliver the local placeness, using the poet projecting local traits.

Key Words : Seongsanpo, Placeness, Humanistic geography, Literary geography

교신 : 양지혜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교육전공
(E-mail: ejemadl486@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21. 01. 25
심사완료일 : 2021. 02. 03
게재확정일 : 2021. 02. 08

* Graduate Course of Jeju National University